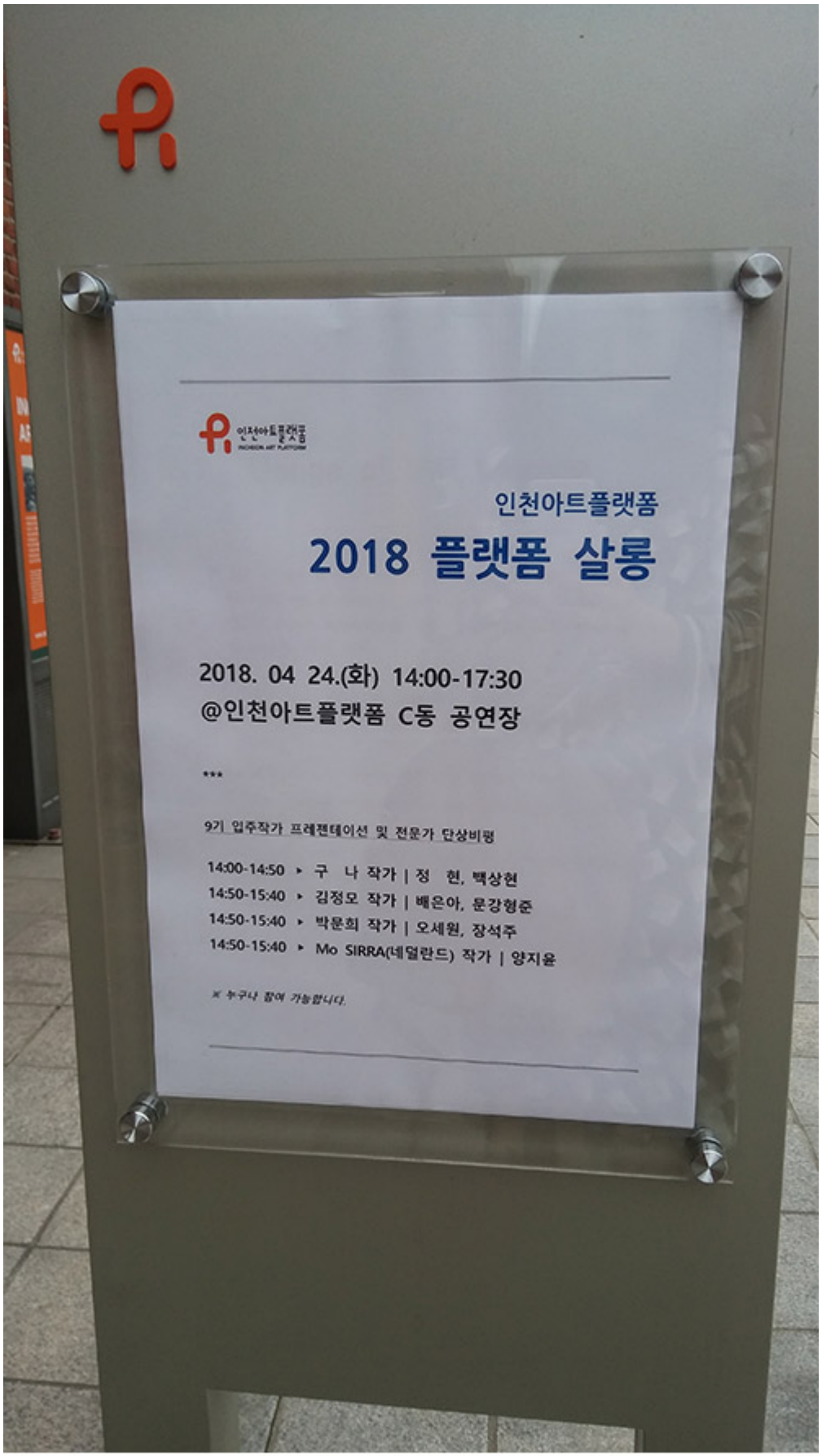
□□□ □□□ □□

2018 □□□□□□□□ <□□□ □□>

□□ <□□□ □□>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. 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 □□ □□□□, 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?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17~18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(□□□□ □□).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 □ □□ 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, 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, □□□□□ □□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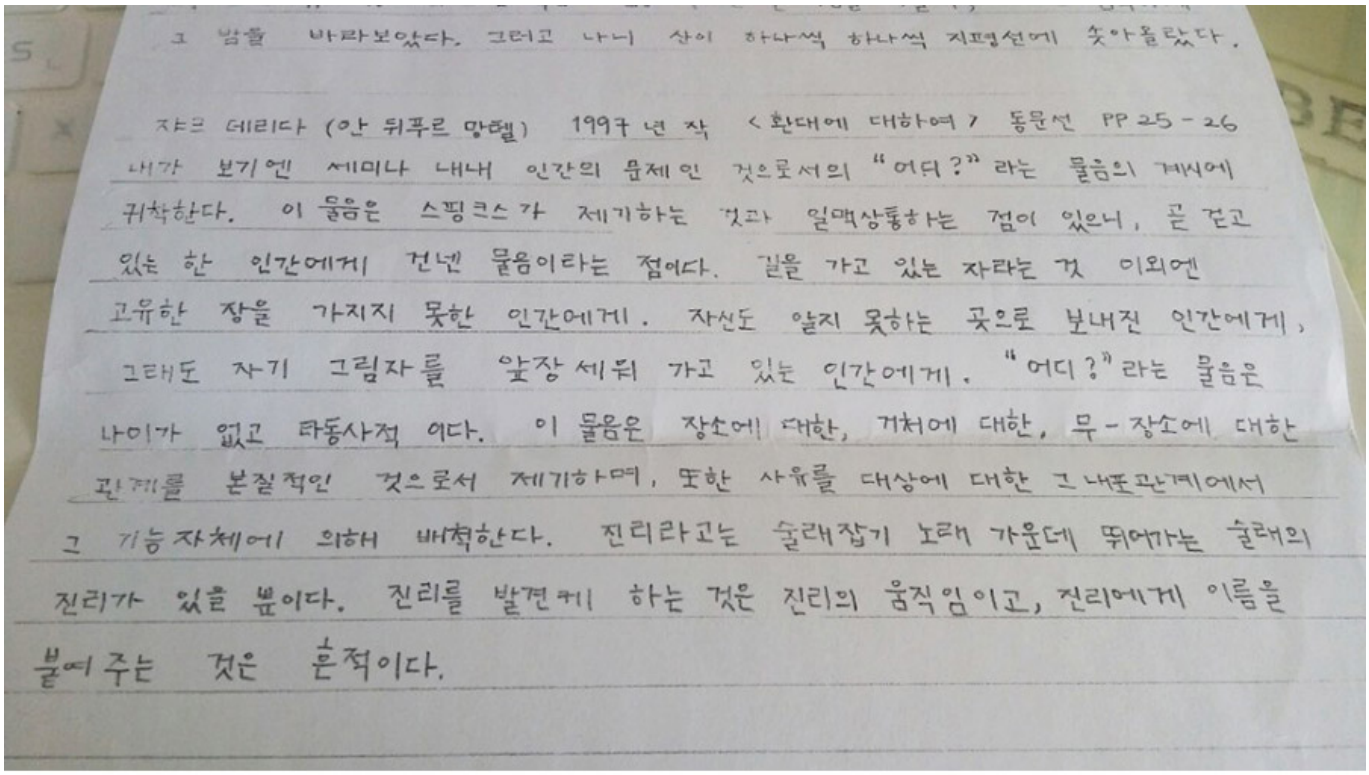
인천아트플랫폼 2018 1차 <플랫폼 살롱>
(2018.4.24.(화)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개최)

□□ □□□ 2018 □□□□□□□ <□□□ □□>□ □□ □□□. □□□ 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,

□,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, 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, □□□, □□, □□,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 □□□ □□□□.

구나 작가와의 대화
출처: 아트플랫폼 제공

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.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. □□ 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.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.



그 밤을 바라보았다. 그러고 나니 산이 하나씩 하나씩 지평선에 솟아올랐다.

자크 데리다 (안 뒤푸르 망델) 1997년 작 <환대에 대하여> 동문선 PP 25-26

내가 보기엔 세미나 내내 인간의 문제인 것으로서의 "어디?"라는 물음의 계시에 귀착한다. 이 물음은 스핑크스가 제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으니, 곧 걷고 있는 한 인간에게 건넨 물음이라는 점이다. 길을 가고 있는 자라는 것 이외엔 고유한 장을 가지지 못한 인간에게.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진 인간에게, 그래도 자기 그림자를 앞장 세워 가고 있는 인간에게. "어디?"라는 물음은 나이가 없고 타동사적 이다. 이 물음은 장소에 대한, 거처에 대한, 무-장소에 대한 관계를 본질적인 것으로서 제기하며, 또한 사유를 대상에 대한 그 내포관계에서 그 기능자체에 의해 배척한다. 진리라고는 술래잡기 노래 가운데 뛰어가는 술래의 진리가 있을 뿐이다. 진리를 발견케 하는 것은 진리의 움직임이고, 진리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흔적이다.

구나 작가가 필사한 문장들
출처: 인천문화통신 3.0 시민기자 김경옥

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,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 □. 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? □□,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 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? 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.

김정모 작가와의 대화
출처: 아트플랫폼 제공

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□. 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.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. 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. <Berlin, street of art 2015>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, “□□□ □□□□, □□□”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.

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 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<Good-Bye>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,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LED □□□ □□□ □ □ 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□□□ <I was here>□ □□□□□□ □□. □□ □□□ □□, □□□ 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, □□□, □□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. 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 □□□,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, □□□,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, □□□. 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.

박문희 작가와의 대화
출처: 아트플랫폼 제공

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,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.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 □□. 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, □□□□ □□□ □ □□ □□□□□ □□, □□ □□□ 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.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 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. 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 □□ □□□. □□□ □□□ □ □□□ 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‘□□’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? □ 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.

모 시라(Mo Sirra), <1000 lamp would not light the sky>
사진출처: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

□□□□ □□□ □ □□(Mo Sirra)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, '□□□'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. 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.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 □□□ □□□ □ □□□ □ □□□ 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.

□, □□ □□□□□□! <□□□ □□>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.

* 2018 □□□□□□□□ <□□□ □□>□ 2018□ 4□ 24□□□ 5□ 10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, □ 6□□ □□□□□.
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(□□□□ ►)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□.

□/□□ □□□□□□ 3.0 □□ □□□
(□□□, □□□□ http://expert4you.blog.me/)